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8. 1(월)	
		작 성 . 문 의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이병우 / 사무관 방준희 (Tel. 044-200-2296/2299)
* 즉시 사용			

각 부처,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극복에 나서야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8.1(월) 09:00시 국무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출생아수 감소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, 각 부처에 저출산 기본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·보완토록 지시하였다.
- 황 총리의 발언 내용 전문은 붙임과 같다.

※ (붙임) 저출산 극복 관련 국무총리 말씀

-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할 가장 큰 구조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「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」을 수립·추진하였으며, 작년에는 「제3차 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
- 하지만 최근 발표된 통계청 발표를 보면 금년 1~5월까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*가 역대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
 - * ('16.1~5월) 출생아수 182,400명, 혼인건수 119,700건
 - ('05.1~5월) 출생아수 189,470명, 혼인건수 126,628건
-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임
 - 또한, 젊은이들은 여전히 결혼·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
- 정부는 젊은 세대들이 부담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
 - 복지부 등 각 부처는 전문가, 미혼청년, 예비부부, 신혼부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여, 기본계획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확실히 보완해 주시기 바람

- 이를 바탕으로 금명간 범정부적으로 「저출산기본계획」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

- 또한,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제계·종교계·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람

-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, 저출산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·보완하여 저출산 문제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